

민주당 총선 시계 '일단 멈춤'

이재명 대표 피습 정치권 파장
광주·전남 예비후보들 서울로
이낙연 창당 움직임에도 '제동'
테러범 당적 어디냐 초미의 관심
국힘 한동훈 '광주 메시지' 촉각



강정희 전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권철승 수석대변인(가운데)이 3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관련 치료 경과 상태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흉기 피습사건 파장이 총선 정국을 관통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극도로 말과 행동을 야기면서 '야당 대표 피습'이 정치권에 안겨줄 영향과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관련 기사 3-4면> 특히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움직임에 따라 크고 작은 논쟁을 겪고 있는 민주당의 내부에서는 분열 양상이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또 4일 광주를 방문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신변 보호에도 비상이 걸렸고, 한 위원장이 광주에서 내놓은 메시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여야는 전남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김모(67)씨의 흉기 피습 사건과 관련, "있어서는 안 되는 정치 테러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 대표가 이른 시일 내 쾌유하기를 바란다"는 공동된 입장을 내놨다. 무엇보다도 이날 김씨의 당적에 대한 정치권이 관심이 집중됐다. 김씨의 당적이 '민주당이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이어졌고, 이에 대해 민주당은 "김씨가 민주당에 가입하기 전에 오랫동안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김씨의 민주당 가입 이유에 대해 더 알아보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여야가 조심스럽게 김씨의 당적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것은 당 색깔에 따른 여야의 유불리가 확연하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김씨에 대한 당적 논란이 확산되자 경찰이 정당법에 따라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김씨가 민주당 당적이 맞다면, 자칫 이번 이재명 대표 피습이 민주당 내부의 갈등으로 흘러갈 수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릴 경우 이 대표에게 각을 세우고 있는 당내 인사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 있고,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이날 비주류 4인방 모임인 '원칙과 상식'은 이 대표 사퇴 및 통합 비상대책위 구성에 대한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탈당 등을 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 대표 피습 사건으로 인해 아마저도 미루는 모양새다. 이날 초 탈당 및 창당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에도 같은 이유로 제동이 걸렸다. 언론 인터뷰 등으로 공개 행보를 활발히 해

오던 이 전 대표는 이날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 이 대표를 피습한 김씨가 상당 기간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힘도 극도로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전날 대선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대표의 피습에 대해 말하자 한 참석자는 '이재명 피습은 쇼'라고 외쳤다. 한 비대위원장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내가 습격 당했을 때처럼 생각해달라"며 제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이 대표의 피습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고, 이에 맞서 민주당은 일부 보수 유튜브버들의 '정치적 자작극'이라는 음모론에 대해 '2차 가해이자, 2차 테러'라고 규탄하며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광주·전남 정치권도 크게 동요하고 있다. 특히 이 대표 피습으로 광주·전남 민주당 경선에서는 '이재명 마케팅'이 더욱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언론사 신년 여론조사 과정에서 예비후보 직함에 이 대표의 이름을 넣는 문제로 일부 후보들 간 실랑이를 벌일 정도로 '이재명 마케팅'의 효과가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지역인 만큼, 이 대표 피습 사건

알립니다

호남의 리더 당신을 모십니다

이은결 마술 강연

김난도 교수 김정은 교수 유현준 교수 서경석 MC 심용환 소장

고수들의 명강연 ... 지역 최고 인적 네트워크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제12기 원우 모집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고품격 아카데미에 광주 전남 전북 지역 각계 리더들을 모십니다. 광주일보는 3월부터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각 분야 유력인사들이 참여하는 1년 과정의 '제12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를 개설합니다.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을 초빙해 수준 높은 강의와 함께 각종 공연 등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강연과 토론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 주요 영역의 시대적 과제와 해결책을 집중 탐구하는 최고급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창간 72주년이라는 호남 최고 전통에 빛나는 광주일보 브랜드 가치와 영향력에 걸맞게 수강생 여러분이 지역사회 최상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일보가 평생 가족으로 모시는 교육과 교류의 장에 지역 리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 인원 : 00명
- 지원 자격 : 기업 경영진 및 임원,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무기관 단체장 및 고위관리자, 사회단체장, 법조 의료 교육 문화 예술 체육계 등 각 분야 전문가
- 교육 기간 : 3월-11월
- 강의 시간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8시30분 (호텔 뷔페 식사 제공)
- 원서 교부 및 접수 : 2월 25일까지
- 합격자 발표 및 등록 : 서류전형 후 개별통보
- 수강료 : 550만원 (부가세 포함)
- 문의 : 광주일보 편집국 062-220-0639

光州日報社

원아 없어...광주 유치원 줄줄이 문 닫는다 ▶6면

광주FC "올해는 더 높은 곳으로 비상" ▶18면

팔도 핫플레이스 - 제주 한라생태숲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바이탈뷰티

마시는 프리미엄 콜라겐 슈퍼콜라겐 골드



구매문의 :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 080-023-5454